

지역 소식통

정읍시, 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축

정읍시가 광역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대표들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주민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대표들로 '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 주변 마을 지원사업 추진과 주민 감시 요원 추천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내실화와 효과를 높이고 있다.

매립장 주변 마을은 매립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 지역으로 5개 면·동 25개 마을이 해당한다.

관련해 시는 2020년 위촉된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들의 임기 만료에 따라 지난 29일 새로 임기를 시작한 신규위원 13명과 시의원 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 위원은 앞으로 2년간 매립장 주변 마을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선운산 명물 '경관 폭포' 데크길 연장

고창군이 선운산도립공원의 명물로 떠오른 '도솔재 경관폭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무장애 데크길 연장에 나섰다.

29일 고창군선운산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총사업비 6억3000만 원을 들여 3개월간 선운산도립공원 경관폭포 앞 주변환경정비, 소공원조성, 무장애 데크길 연장공사를 진행한다.

선운산 무장애 데크길은 유아차는 물론 장애인 전동보장구가 오르내릴 수 있도록 경사도를 8도로 맞춘 완만한 데크길이다. 계단과 턱이 없는 대신 경사도를 유지하다 보니 산책로는 지그재그로 연결돼 있다.

기존 선운산 도솔재 험터까지 이어진 데크길을 폭포 바로 앞까지 연장한다. 접근성과 보행성을 높여 장애인, 노약자 등 모든 방문객이 편하고 안전하게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내년에는 황토포장, 데크길 수변데크를 설치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역경제 회복 민생안정 최선

심덕섭 고창군수, 군정운영방향 보고·제2회 추경 제안설명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29일 제20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면서 민생기 군정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심 군수는 "인력의 변화와 위기상황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를 혁명하고, 실사구시를 탐구했던 고창인의 뜻을 받들어 모두의 행복이 가득한 활력 넘치는 도시를 그려 보겠다"고 덧붙였다.

고창군 민선 8기 첫 추경예산은 기존예산대비 914억원(12.51%) 증가한



8219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군은 이번 추경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 군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민선 8기 핵심사업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연구용역비, 군정현안 필수 사업 등에 중점을 뒀다.

일반회계가 897억원 증가한 8025억원, 특별회계는 17억원 증가한 194억원이다. 사업별로는 △전군민 재난기본소득지원 82억원 △코로나19 생활비지원 30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34억원 △노을대교와 연계한 에너지지원 및 관광지원 활용방안 연구용역 △해양치유지구 지정용 연구용역비 등 각종 용역비 13억원 △고창사랑상품권 할인 발행 11억원 등을 편성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철도어린이집 건립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정읍시-국가철도공단, 21억 투입

정읍시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통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편한 환경 조성에 나선다.

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직장인 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과 정읍 철도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이학수 시장과 국가철도공단 최원일 호남본부장이 참석해 철도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기관별 역할을 협의하고 공동 서명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철도공단은 철도 역사 내 유휴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철도어린이집 조성에 필요한 설치비와 교재, 교보재, 교구 등 운영 물품의 설치를 지원한다.

시는 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진행 등 행정적 제반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국공립어



린이집 지정과 위탁운영자 선정, 건축상 결함의 유지보수 등을 책임진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취약계층 보육 활성화와 영유아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 인증 도전

전북 고창군의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이 29일 제27차 지질공원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국가지질공원으로 재인증을 받았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질 자원의 현명한 보전 교육·관광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정되고 있다. 4년마다 지질공원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번 재인증은 코로나19로 연기돼 지난해 하반기부터 재인증 평

가가 진행됐다.

2017년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으로 국내 9번째 인증을 받은 후 지질명소 보전과 활용을 위한 탐방로 구축, 신규 체험·탐방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질공원 탐방 안내 체계개선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고창군은 병바위 지오트레일 조성, 운곡습지 생태공원 내 지질체험 학습장 조성, 지오트레일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

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 중인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은 2023년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도전하며 올해 가을 현장실사를 앞두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며 "가을에 있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현장실사와 이사회 의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돌아온 변산해수욕장 여름축제

부안군, 바이썬 비치파티 8월 5-7일 개최

코로나19로 한동안 볼 수 없었던 변산해수욕장 여름축제가 3년 만에 돌아왔다.

올해 '바이썬 비치파티 (BYSUN Beach Party)'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변산해수욕장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기존의 수동적이었던 축제의 성격을 탈피하고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며 경계를 허물 물 만난 'Beach Party(비치 파티)'를 준비했다.

최근 장안의 화제를 일으켰던 스트리트 댄스 프로그램은 모티브로 한 열정적인 퍼포먼스와 전국의 댄스들의 경연과 함께, 8월 5일 금요일에는 스트리트 댄스 걸스 파이팅(스걸파)의 '아마존' 크루와 8월 6일 토요일에는 스트리트 댄스 파이팅의 '프라우드먼' 크루(모니카, 다이아 로지, 림제이 케이네이, 함지, 헤일리)가 한자리에 모여 변산해수욕장의 바이썬 비치파티에 뜨거운 열기를 불어넣어 줄 예정이다.

또한 8월 7일 일요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한 '포스댄스컴퍼니'의 판타스틱한 퍼레이드도 선보일 예정이다.

전라북도 대표관광지인 명칭과 함께

백사청송 변산해수욕장에서 힐링과 여유가 넘치는 '버싱킹 공연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바이썬 비치파티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초와 함께 단 하나뿐인 인생샷도 건질 수 있는 일석이조 축제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카바나 존과 형형색색의 칵테일·수제맥주들을 즐기며 아름다운 나초와 함께 인생샷을 찍은 후 한 여름밤에 열리는 '해변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DM) 버블파티'가 벌써부터 후끈하다. 여태까지 변산에서 볼 수 없었던 DJ 라인업 및 감성 디제잉으로 변산해수욕장을 해의를 온 듯한 서해의 최고 피서지로 만들 것이다.

넓은 해안가 전체를 무대로 삼으며 더위를 날려 줄 버블,물대포와 함께 파도소리를 곁한 EDM파티를 즐긴다면 이번 여름휴가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한 추억이 될 것이다.

이에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파티는 코로나19로 제대로 된 문화생활을 향유하지 못하고 힘든 시기를 보낸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모처럼 힐링하며 즐기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농식품부 '신활력플러스 사업' 본격화

정읍시는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시 관계자를 비롯해 시민과 지역 단체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중심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한 명확한 설명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향후 추진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소개와 함께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수요조사가 함께 진행됐다.

또한 참여자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창의적인 사업을 기획·발굴하는 민간 주도형 국가공모사업이다.

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해 '향기 산업 고도화'를 위한 공동체 플랫폼 구

축'을 비전으로 사람과 자연이 어울리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인력육성, 향기 자원을 활용한 가치 창출, 지역 상생·지역육성 등 3대 발전목표를 토대로 9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지역 정체성을 찾기 위한 사계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상생을 위해 혁신 공간 공유센터와 정보공유 플랫폼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사업단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8월 중에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상호간의 생각과 의견을 논의하는 100인 토론회도 가질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정읍의 지역 여건과 사업계획의 현실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 정읍시의 신성장 동력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